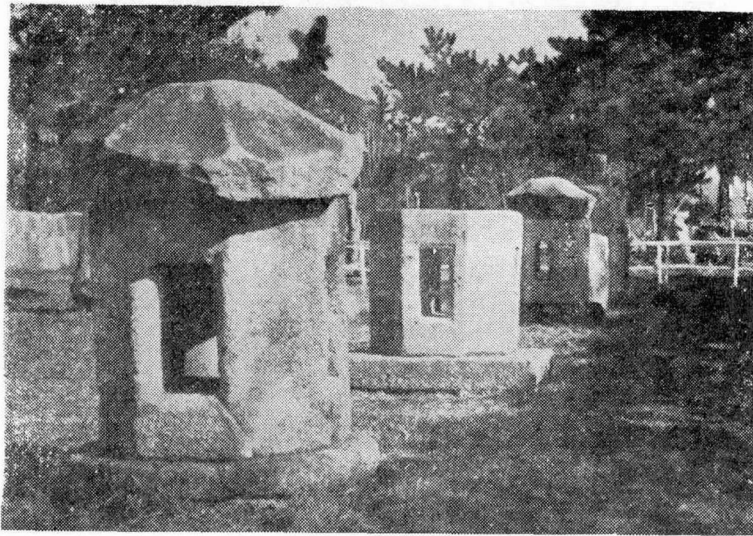


아原來寺內에 建立하는 佛塔이 아니고 層塔形式의 浮屠塔으로 考察되  
며 製作年代는 作品의 手法으로 보아 高麗로 推定된다.

### 益山 彌勒寺址의 百濟石燈

黃 壽 永

解放後 彌勒寺址에 대한 調査에서 發見된 古代의 石造遺物 및 瓦博類



는 數次에 걸쳐 扶餘博物館에 移管되었다. 이 調査는 洪思俊氏와 筆者가 擔當하여 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三基石燈의 存在를 말하는 火舍石三個를 비롯하여 그 屋蓋石 蓮花紋臺石等인데 이들은 一九五五年부터 數年間に 收拾 또는 發掘된 것이다. 이 곳에 石燈材만을 간단히 紹介하며 瓦博等은 次後로 다루기로 하겠다. 彌勒寺址에서 石燈材가 出土되었다는 말은 一九五五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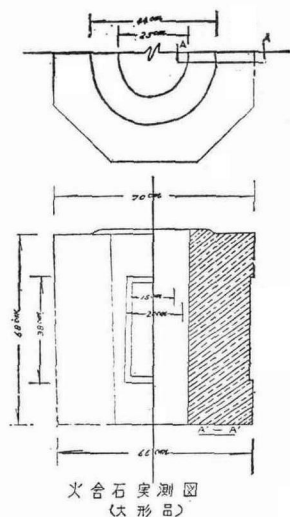
十一月 金馬面의 益山中學校長 蘇秉敦<sup>①</sup>氏를 찾았을 때 同氏로부터 처음 들었다. 그리하여 洪氏와 筆者는 夕陽길을 달려가서 寺址南方約 1km 地點인 彌勒國民學校校門左右에 移置되어 있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때 조사된 것은 火舍 二個(모두 完全)와 屋蓋石 一個(大形品)이었는데 이들은 寺址部落에서 國旗揭揚臺石으로 使用된 일도 있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었다.

다음 一九五七年 一月에는 部落民의 敎示에 따라서 石塔 東方인 논가에 埋沒되어 있는 火舍石<sup>②</sup> 一個를 發掘하였으며 同時に 石塔南面 約 3m 地點에서 尖端을 地表에 露出시키고 있는 蓮花紋石小片을 發掘하였다. 끝으로 一九五七年 十月에는 寺址中央을 貫流하는 川邊에서 蓮花紋臺石<sup>③</sup> 一個와 屋蓋石片(小品) 一個를 收拾하였던 것이다. 以上 計七個의 石燈材 以外에도 八角石柱를 川邊에서 收拾하였으나(今在扶博)石燈竿石으로 推定하기 어려우므로 除外한다.

#### 二

火舍石 三個는 거의 同一規模의 八角石으로서 長方火窓이 交互로 四面에 鑿려 있으며 모두 內空으로서 上面의 圓孔과 貫通되어 있다. 火窓 周邊에는 輪廓線이 一段乃至二段으로 마련되었고 窓門을 달았던 釘鉤孔이 上下左右에 一定間隔을 두고 과져 있다. 八角面이 모두 上廣下狹의 彫法을 보이고 있는 것은 各例에서 同一하다. 다만 三個中 가장 큰 火舍石(圖面) 上面에는 둥근 테두리가 얇게 둘러있는 바 이것은 屋蓋石과의 結構에서 浸水防止를 위한 用意로 생각되었다.

屋蓋石 大小二個는 모두 不完全하여 擔端은 全缺되었는데 八角을 이루는 轉角部에는 낮은 隅棟形이 隆起되어 있으며(大形品에서) 內面은 둥글게 파내어서 頂上에 이르러 寶珠를 끼었던 圓孔을 마련하였다. 蓮花紋臺石 二例中 小片은 蓮花 二瓣(瓣幅 三·三cm 高 二·九·五cm)뿐이며 다른 하나는 中央에 竿石을 받던 圓孔이 있고 그 둘레에 四瓣의 蓮花가 남아 있고 下面에는 一段의 턱을 받들고 있다. 이 蓮花紋樣式은 花瓣이 넓고 內彎되었으며 小片은 尖端을 突起시키고 있다. 以上の 各石은 모두 彫法이 溫和하여 優雅素朴한 作風을 보이고 있어 百濟末 彌勒寺 創建(七



世紀前半)과 同代的  
造成으로 推定하고  
자한다.

三  
百濟의 石燈材로  
서 扶博에 陳列되  
어 있는 佳塔里發見  
의 蓮花臺石④一個  
가 있을 뿐인데 이  
들 새로운 遺材를

增加한 것은 多幸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八角形을 基型으로 삼고 있는 것은 新羅統一後 더욱 發達된 우리나라 八角石燈의 始源樣式을 보이는 貴重한 遺品이라고 할 수 있다. 同時에 이들 三個의 火舎石이 發見된 地點이 하나는 (發掘된 것) 石燈東方이며 다른 二個는 寺址中央(最大品)과 그 西方⑤(發掘한 部落民에 依한)이었다는 事實이 이곳 寺址에 대한 復元을 위하여 하나의 考察點을 提供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殘餘石材의 發見을 期待하면서 古代의 優秀한 石燈을 多數保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發生年代와 地域과 系譜를 살피는 資料를 삼고자 한다. (十一月二十二日記)

註

- ① 益山中學校發行 「益山古蹟」(一九五三年刊)에 「지금도 石燈籠佛石等の 出土가 繼續되고 있다」고 하였다.
- ② 發掘時는 嚴冬이었고 地面은 結氷되었는데 不注意로 二片으로 分斷되었다. 이 火舎의 高六七cm 一邊幅上 二七cm 下 二五cm 上徑 五九cm
- ③ 이 蓮花臺石은 高二五·五cm 徑七七cm 四瓣이 남았으며 圓孔徑 二九·五cm 깊이 一〇cm
- ④ 藤澤一夫·百濟石燈資料 (史蹟과 美術) 一五八) 博物館陳列品圖 卷第十四輯

⑤ (附)火舎石一個(寺址西方出土推定)의 高는 六三cm 上徑六五·五cm 一面幅上端이 二七cm 下端 二六cm

### 奉化 北枝里的 磨崖佛像

鄭 永 鎬

慶北奉化郡 物野面 北枝三里에 水月庵이 있고 庵子西便 山尾岩壁에는 陽刻된 巨大한 石佛一軀가 現存한다. 結跏趺坐像인 바 「페리이푸」가 커서 거의 圓刻에 가가운데 各部彫刻이 磨滅되고 光背의 一部가 破損되었으나 高古한 手法이 注目되었다. 岩壁으로부터 一七〇cm 以上으로 陽刻된 坐像이 中央에 位置하고 그 左右後壁에는 化佛이 上下로 二軀씩 浮彫되었으나 左便은(向左) 上部化佛이 半破되었다.

現高 三四五cm의 巨像이나 膝部以下가 埋沒되고 築壇되어 있는 關係로 그 下部까지의 實高는

